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3

“우리도 함께 뛴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애국심 고취·체력 단련 스카우트 정신으로 질주

스카우트 광주연맹 빛고을대

“이번 대회를 통해 애국심 고취·품성 함양·체력단련·사회봉사 등 스카우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빛고을대(이하 빛고을대) 우형옥(60) 대장이 이같이 대회 출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스카우트의 교육 목표를 실행하는데 적합한 대회 중 하나이다” 면서 “어린 대원들에게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원 80명·지도자 15명으로 구성된 빛고을대는 이번 대회에 초·중·고 대원과 지도자 등 40여명이 출전해, 5km 완주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 중 윤상하(56) 지도자는 유일하게 풀코스에 도전해 어린 대원들에게 스카우트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겠다는 기세이다.

마라톤 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대원들도 그간 야영활동 등을 통해 다져진 체력과 자신감으로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40여명 5km 완주 도전

박민욱(문정초) 대원은 “첫 야영 나갔을 때처럼 벌써부터 설레인다” 면서 “끝까지 달려서 방학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초등생 답지않은 다부진 출전 소감을 밝혔다. 중등대원 안은비(문흥중)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료대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겠다” 며 “지금부터 준비운동을 꾸준히 해서 반드시 완주하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빛고을대는 2년 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잼버리와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대회에 계속 참가해 온 광주의 대표적인 지역대이다. 직접 텐트를 치고, 취사하는 야영활동 등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또 각국 대원들과의 교류로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혀가고 있다.

빛고을대는 이러한 기능활동 외에도 자연정화·불우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무등산과 광주천 등에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을 찾아 장애자들을 목욕시키고 다정한 얘기를 나누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도자 윤상하씨 풀코스에

이러한 스카우트 활동으로 각종 기능장을 받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스카우트 최고의 영예인 ‘범스카우트’ 기능장을 받게 된다. 창단 25년째 되는 빛고을대에는 범스카우트가 무려 15명이나 탄생한 말 그대로 우수지역대라 할 수 있다.

스카우트는 학교 성적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부도 게을리 할 수 없다.

건강한 심신을 키워가고 있는 빛고을대는 3월1일 오전에 마라톤 대회 참가한 후 오후엔 대원들 승진식을 가질 계획이다.

불굴의 정신으로 참가자 모두가 완주의 기쁨 속에 진급자에 대한 축하행사가 이어지는 빛고을대의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빛고을대가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끝까지 달려 스카우트의 정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출전의지를 다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지난 24일 이탈리아 안톨즈 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월드컵 6차 대회가 끝난 후 함께 포즈를 취한 전남 소속 한국바이애슬론 대표 이인복 (보성군청)·문지희(진도군청)·조인희(장흥군청)·김상욱 코치(왼쪽부터). 이들은 오는 2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도 참가한다. 〈바이애슬론 대표팀 제공〉

“전라도의 힘 세계에 알리겠다”

전남 소속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김 상 욱코치 전화 인터뷰

伊 월드컵 시리즈 참가 문지희·이인복 등 3명 동계올림픽서 선전 다짐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올림픽 개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3명의 전남 소속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들이 있다.

김상욱 국가대표 코치(현 전남빙상연맹전무이사)를 비롯해 문지희(진도군청)·이인복(보성군청)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조인희(장흥군청)도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지만 아쉽게 이번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 선수 6명·지도자 3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출국해 현재 이탈리아 안톨즈에서 바이애슬론 월드컵시리즈 6차대회에 참가 중이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오는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대비, 실전경험도 쌓고 있다.

“문지희·이인복 모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대회 초반까지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경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김상욱 코치가 24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표선수들의 컨디션을 이같이 전해왔다. 김 코치는 “이곳은 기온변화가 심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운동하기 어렵고 해가 짧아 오랫동안 훈련할 수 없다” 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오전·오후 3시간씩 휴식시간을 줄여가며 훈련하곤 한다”고 현지 훈련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바이애슬론 전망에 대해 김 코치는 “이곳에서 바이애슬론의 인기는 축구 다음으로 높다. 대회가 열리면 관중이 7~8만명 정도 몰리는 것은 보통이다”고 유럽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직까지 유럽의 기량을 따라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출전기회를 얻어 정상급 선수들과 경기를 하다보면 한국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코치는 “문지희는 20위권, 이인복은 30위권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문지희·이인복 선수는 타지역 출신이지만 전남에서 영입해 동계체전 일반부 전남대표로 뛰고 있다. 하지만 김 코치는 순수한 ‘전라도 토종’이다.

광주 출생으로 운암초·서강중·전남체고를 졸업한 김 코치는 고교 1년때부터 바이애슬론을 시작한 늦깎이 선수였다. 이후 1988년부터 5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일반부 바이애슬론팀이 없어 국가대표 생활 중 2년은 무소속으로 뛰는 어려움도 겪었다.

2003년부터 전남빙상연맹전무이사를 맡아온 김 코치는 지도력을 인정받아 2년전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김 코치는 "비록 메달권 진입은 어렵지만 국민들과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림픽 출전 각오를 마지막으로 밝혔다.

전남 소속의 자랑스런 3총사가 동계올림픽에서 고향과 국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연아 빠진 은반 아사다 무대될까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내일 전주서 개막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싱글의 판도를 엿볼 수 있는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가 27일부터 나흘동안 전북 전주 화산아이스링크에서 치러진다.

4대륙피겨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북중미·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피겨 선수들이 남자 싱글, 여자 싱글, 페어, 아이스댄싱으로 나뉘어 경쟁을 펼치는 이벤트이다.

1999년 시작된 4대륙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전주), 2005년(강릉), 2008년(고양)에 이어 네 번째이다. 전주에서만 두 번째 열린다.

김연아(20·고려대)가 불참하지만 아사다 마오(20·일본), 스즈키 아키코(24·일본)가 최고의 흥행카드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가대표 곽민정(16·수리고)이 ‘밴쿠버 예행 연습’을 치른다.

또 김채화(22·간사이대)와 김나영(20·인하대)도 곽민정과 힘을 합쳐 한국 여자 싱글의 자존심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김연아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다툴 아사다 마오다. 아사다는 이번 시즌 자신의 장기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 점프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까지 실패하는 최악의 슬럼프를 겪었다.

하지만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을 계속 고집했고, 지난해 12월 비록 국내대회였지만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204.62점을 얻으면서 올림픽 출전권과 4대륙대회 출전권을 동시에 따내 자신감을 찾았다.

한국 대표 곽민정은 지난해 11월 피겨랭킹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올림픽과 4대륙대회 출전권을 모두 확보했다. 지난 시즌까지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뛰었던 곽민정으로선 이번 대회가 시니어 데뷔 무대다.

지난 2008년 ‘김연아 장학생’으로 뽑혔던 곽민정의 강점은 높은 점프 성공률과 유연성을 앞세운 스핀 연기다. 다만 인 에지를 사용하는 플립 점프를 아웃 에지를 쓰면서 ‘롱에지(wrong edge)’ 처리되고 있는 게 ‘옥에 티’다. 하지만 곽민정은 이번 시즌 프로그램에서 플립을 제외한 트리플 러츠와 더블 악셀 등 나머지 점프는 90% 이상 성공률을 보이고, 스핀도 최고난도인 레벨 4를 유지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7일 아이스댄싱 컴펄서리 댄스를 시작으로 30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까지 나흘 동안 치러진다. 관심이 쏠리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은 27일에, 프리스케이팅은 29일 각각 열린다. /연합뉴스

새 용병 로드리게스 합격점

KIA 괌캠프 합류… 몸상태·성실함에 코칭스태프 만족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용병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괌캠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KIA는 올 시즌 로페즈와 호흡을 맞출 새로운 용병으로 도미니카 출신의 로드리게스를 영입했다. 지난 21일 한국에 들어와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던 로드리게스는 이날 곧바로 괌으로 날아가 선수단에 합류했었다.

아직 선수단에 합류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로드리게스는 성실함과 몸상태로 일단 ‘OK사인’을 받았다.

최근 몇 년 간 슬럼프를 겪으며 성적이 좋지 못했던 로드리게스는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삼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열성을 보이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웨이트와 러닝 등 훈련을 성실하게 소화하고 있다. 탈이 날까봐 프런트들이 오히려 훈련을 말릴 정도다.

25일에는 조범현 감독 앞에서 피칭도 선보였다.

올 겨울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활동했던 로드리게스는 이날 50개의 공을 던지며 몸상태를 점검 받았다.

조범현 감독은 “선수단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피칭하는 것을 보니 몸 준비도 잘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국 문화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용병 선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무래도 낯선 문화와 음식이다. 하지만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로드리게스는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을 정도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제 2의 로페즈로 통한다. 로페즈가 ‘훌륭한 선수’라고 적극 추천을 했던 로드리게스는 192㎝의 장신으로 190㎝인 로페즈와 체격과 외모가 엇비슷하다. 거기에 로페즈와 마찬가지로 싱커가 일품이다.

2010시즌의 성공을 그리는 로드리게스는 29일 일본 미야자키로 무대를 옮겨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